

## 아폴로11호와

## 事業經營者

〈時 論〉

社團法人 韓國타이어 工業協會

理事長 玄 錫 珍

至今까지 全 世界의 人間들은 달을 보고 울고 또는 웃기도 하였으며 神秘에 가리워진 人間의 羨望의 對象이 되어왔다. 「李太白이 놀던 나라」 또는 「桂樹나무 밑에서 토끼가 놀던 나라」란 말로 달이란 未知의 것으로 생각하여 왔으며 人間에게는 永遠한 神秘로 여겨왔던 「달」이 드디어 1969년 7월 16日 10時 32分 「닐·암스트롱」「에드윈 올드린」「콜린즈」의 세 사람은 世界에서 첫 우주征服人이 되기 위하여 全世界人類의 熱烈한 關心下에 「아폴로 11호」宇宙船을 타고 달로 出發한 후 달 大氣圈까지 無事히 到着해서 7月 21日 上午 11時 56分 26초에 「아폴로 11호」의 달着陸船 「독수리호」에서 「닐·암스트롱」이 45억년의 神秘를 간직한 달 表面 「고요의 바다」에 歷史的인 첫발을 내 디딤으로서 人類는 人類스스로의 힘으로 開拓한 第二의 創世紀를 맞게 되었다.

나는 달 着陸을 「테레비」로 보았을 때 高度로 發達한 現代科學에 依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人間이 달에 着陸하므로써 地球상의 모든 價値에 새로운 挑戰을 가져오는 것이다. 작은 人間이면서도 그 精神의 偉大함과 그 能力의 無限함을 새삼스럽게 證明한 이번 壯舉는 人類科學文明의 劃期的인 段階를 意味하며 이것을 契機로 우리들은 東洋的인 非科學的 觀念은 이 땅에서 完全히 拂拭되어야 할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人間이 달에 갔다 오는 契機로 인하여 「Automation 時代」라는 自動工業化 社會에서 超技術社會로 突入하는 「아폴로時代」가 되는 時點에서 韓國의 經營者나 科學者 또는 技術者들은 좀더 反省하고 覺醒하여야 할 것이다. 自己의 조그마한 知識이나 技術을 가지고 發展할 줄 모르며 마치 그 技術이 언제나 새로운 것처럼 自己滿足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現代의 모든 事業은 變動하는 市場經濟에 놓여 있으므로 經營者나 技術者들은 이들의 變化에 適應되어 가

도록 新結合(New combination)이라는 創造機能을 發揮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과 같이 技術의 進步나 生活의 Tempo가 急激할 때에는 모든 事業經營은 在來의 製品, 舊式의 生産技術 또 從來의 販賣方法에만 安住할 수 없다. 그 產業이 좀더 成長할수 있는 새로운 市場地位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製品種類의 改善, 設備의 近代化, 市場開拓 等の 革新職能을 實行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한 것이다. 勿論 오늘날의 大會社에서는 製品種類나 生産技術의 改善研究가 會社內의 技術研究所에서 행해 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技術研究에 一定한 方向을 指示하고 어떻게 이것을 組織하고 그리고 어떻게 成功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最高經營者(Top management)의 責任인 것이다. 先進國에는 이미 事業經營에 있어서 資本의 出資者가 아닌 經營者 즉 經營者로서의 知識, 經驗, 能力에 依하여 選任되고 經營者의 獨自的인 職能을 社會的任務로 하는 專門經營者가 登場하여 正確한 知識과 明徹한 識見을 가지고 事物을 處理하는 데에 比하여, 우리 나라는 아직도 企業資本의 提供者인 동시에 企業의 經營을 直接擔當하는 所有者의 經營者들은 企業의 모든 分野에 參與하여 正確한 判斷으로 利害調整과 經營의 合理的인 維持를 못하므로써 自然히 企業은 急進的으로 發展 못하고 소(牛)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經營者들은 革新職能, 利害調整職能, 管理職能 등을 잘 遂行하므로써 事業의 合理的인 維持가 될 것이고 企業은 좀더 發展할 것이다.

또한 現時代는 人間이 달에 갔다 오는 즉 人類가 跳躍하는 時點에 있어서 事業經營者들이나 모든 技術者들은 좀더 自我批判을 하여 組國近代化 目標에 앞장서서 國家計劃에 발맞추어 專念하므로써 보다 낫은 國民生經濟가 向上되었으면 하는 마음 懇切하다.